

손창섭 소설에 드러난 우울자의 저항방식과 희극성

배 경 렬*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자연적 삶에 대한 긍정으로서의 희극성 |
| II. 악마적 저항으로서의 나태와 침묵 | IV. 결론 |

I. 머리말

손창섭은 「공휴일」(1952.6), 「사선기」(1953.6)¹⁾가 김동리의 추천으로 「문예」지에 발표되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하여 1970년 말(「樺術娘」(1978)까지 창작을 계속하였다. 본고는 신문연재 소설인 「부부」(「동아일보」, 1962) 이전, 즉 「육체혼」(「사상계」, 1961. 11)까지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을 60년대 초반까지로 한정한 것은, 비록 「부부」 이후의 작품들에 대하여도 일정한 의의를 인정하더라도, 이후의 통속적인

* 순천대 국문과 강사

1) 「문예」에 발표될 당시에는 「사선기」로 되어 있으나, 『비오는 날』(『일신사』, 1959)과 특히 김동리의 「소설추천기」(「문예」, 1956.6. 77면)에 「사선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線'은 '線'의 오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문연재소설이나 역사소설은 생계의 확보가 일차적인 창작동기였다는 점, 특히 고유한 전후소설적 면모, 즉 역사에 대한 절망과 그에 기초한 특유의 작품 세계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손창섭 소설의 작품세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일차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작중인물의 특이성이다. '의미있는 것으로 장식된 가면을 벗기고 맨얼굴'²⁾을 드러내려 했다는 평가에서 드러나듯 그의 작품 속에 묘사되고 있는 인물은 기존의 인간관을 근본적으로 전복시키고 있는데, 손창섭 고유의 작품세계는 이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창섭은 다양한 인물을 통해 도덕적 가치와 인간적 삶을 추구하는 인물 유형을 창조하고 있다. 이는 당대 인간의 존재 상황에 대한 손창섭 고유의 규정, 즉 약육강식의 전쟁상태에서 자연적 물리적 존재로서 자기보존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도덕적 가치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추구 또한 포기할 수 없었던 당대 인간의 이중적 모습이 이러한 인물 유형으로 구체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손창섭의 소설에 대한 비평은 조연현의 「병자의 노래」를 비롯하여 윤병로의 「혈서의 내용」(1958), 유종호의 「모멸과 연민」(1959), 송기숙의 「창작과정에서 본 손창섭」(1904), 이선영의 「아웃사이더의 반항」(1966), 이동하의 「손창섭 소설의 세 단계」(1984) 등 주로 손창섭 소설의 개괄적인 평가나 의식면의 분석적 유형화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³⁾ 이러한 작가의 총체상이나 작품이 내용적 분석에 의한 자의식의 모멸과 패배로 압축되는 의식의 추출을 주로 하는 데 비해 조기원의 「손창섭의 문체론적 고찰」(1970), 이어령의 「수인의 미학」(1967) 등은 손창섭 소설의 새로운 기법과 개성적인 문체의 규명에 의한 내적 질서의 접근에 의한 소설미학의 규명으로 창조적 신비의 새로운 베일을 벗기고 있다.⁴⁾ 이

2) 김윤식, 「6.25전쟁문학」, 『1950년대문학연구』, 예하, 1991.29면.

3) 윤병로, 「혈서의 내용」, 『현대문학』 1958. 12.

유종호, 「모멸과 연민」, 『현대문학』 1959. 9.

송기숙, 「창작과정에서 본 손창섭」, 『현대문학』 1964. 9.

이선영, 「아웃사이더의 반항」, 『현대문학』 1966. 12.

이동하, 「손창섭소설의 세 단계」, 전광용 의 『한국현대소설사연구』 민음사, 1989.

4) 이어령, 「수인의 미학」, 『현대한국문학전집 3』 신구문화사, 1967.

조기원, 「손창섭의 문체론적고찰」, 『선청어문』 1973.

러한 비평에 비해 연구의 측면에서는 손창섭 소설의 총체상의 의미를 체계화 시키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을 끈다. 최초의 전후작가론인 김상선의 『신세대작가론』(1964)을 비롯하여 최상윤의 『성격학에서 본 손창섭 소설의 작중인물고』(1971), 배정은의 『아웃사이다 의식에 비추어 본 이상, 손창섭, 장용학』(1973), 『50년대 소설에서 본 피해의식 소고』(1979), 경규진의 『손창섭소설의 자의식 연구』(1982), 신경득의 『한국전후소설연구』(1983), 유학영의 『1950년대의 한국 소설연구』(1987) 등 석·박사 논문이 이어져 주로 손창섭소설의 의식과 세계관을 유형화시키며 그 의미를 추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김상선은 ① 목석의 논리, ② 체념의 철학, ③ 인간구원과 또 하나의 절벽, ④ 꿈의 내용, ⑤ 광명을 향하여의 다섯 면에서 '손창섭의 소설의 병의식 세계'를 검증하여 그 병적 의식 세계를 조명하고,⁵⁾ 경규진은 인간모멸과 부조리 인식과 피해의식이 심층에 도사린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① 실존적 상황과 ② 자의식의 양상, ③ 자의식의 형상화 기법의 세 국면에서 손창섭소설의 자의식을 유형화하고 있으며,⁶⁾ 신경득은 ① 목석의 시각, ② 한과 원(怨)의 양식, ③ 존재 위의 수인극, ④ 실존의 삶의 외의 네 유형이 시각에서 '반항과 작절의 회화화'의 손창섭소설의 의식세계를 노출하고 있는데에,⁷⁾ 손창섭 소설의 의식세계의 투시적 궤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사실, 손창섭 소설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그의 병적이며 목석을 닮은 의식세계의 해석과 그 유형화에 모두어지고 있다. 1950년대의 전후상황이란 지층을 원경으로 한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기반을 벗고 살려고 내재의식의 표출을 주로 한 인물의 의식을 조명하는데 모두의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 송기숙의 『창작과정을 통해서 본 손창섭』이 정신분석적 접근에 의한 의식이 표출된 창조적 질서의 형성과정을 규명하고 있는 것이나, 이동하가 『손창섭소설의 세단계』에서, 『미해결의 장』(1955), 『영여인간』(1938), 『낙서죽』(1959)의 세 작품을 중심으로 그 의식세계의 변모과정과 작가의 의식의 성숙을 향한 변모양상을 부감하고 있는 것이 손창섭소설의 새로운 의미를 더하고 있으나, 모두가 의식적변

5) 김상선, 『신세대작가론』, 일신사, 1964.

6) 경규진, 『손창섭소설의 자의식연구』 논문집, 서울대사대, 1982.

7) 신경득, 『한국전후소설연구』, 일지사, 1983.

이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그 궤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손창섭 소설의 모든 특징이 집약되어 있는 곳은 그의 등장 인물들이다. 그들은 권태형 인간이고, 병적 인간이며, 철저하게 소외된 아웃 사이더들이다. 이런 인물들을 통해 작가는 사회의 병든 응달에 대한 투시력과 작가자신의 특이한 개성표현을 시도하고 있다.

「유실몽」의 철수, 즉 작가의 관점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터무니 없는 자존심으로 형벌처럼 불행과 고독을 겪어지고 있다'는 철수의 관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손창섭은 이러한 인물 유형을 통해 당대 인간의 불행을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들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미국 유학의 꿈을 추구하는 「미해결의 장」의 지숙부터 으르쳐서한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생활적」의 동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 도덕의 초월과 도덕에 대한 회의의 경계선 상에 존재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불행의식과 우울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다. 니체의 관점을 따를 때, 그들은 아직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예비적인 인간'이지만, '모든 것이 죄없다는 통찰'에 이르는 도정상의 인물로서 슬픔의 능력을 간직하고 있다는 데 본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⁸⁾ 본고는 이들 인물을 우울자로, 그리고 그들을 통해 표현되는 작가의 관점을 우울자의 관점으로 규정하고 그 특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Ⅱ. 악마적 저항으로서의 나태와 침묵

손창섭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초주체적인 운명에 의하여 불행과 죄를 강요당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일견 비극적 인물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들은 죄에 대한 자부심이나 비극에 필수적인 '비극적 행위'⁹⁾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8) F. Nietzsche(김미기 역),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1』, 책세상, 2001, 118-121면.

9) 야스퍼스는 비극적 의식이 단순한 고뇌와 죽음에 대한 의식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필수적인 요소로 비극적 행동, 즉 인간으로 하여금 분류를 일으키고 불가피한 필연성에 의해 파멸로 떨어지게 만드는 행동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K.

고전적 의미의 비극적 영웅과 구별된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서 안티고네는 아버지 외디푸스의 죄를 물려받은 인물로서 자진해서 신화적 운명의 희생양이 된다. 비극적 영웅은 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자의식 속에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신화적 운명에서 벗어난다. 반면 손창섭 소설의 주인공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피조물의 중도반단의 끝남을 의미하는 바, 그들은 신화적 운명의 일방적인 희생자에 불과하다.¹⁰⁾ 또한 비극적 인물은 주관적 목적과 의지의 실행으로서의 비극적 행위를 통해 분규를 야기시키고 몰락하는 데¹¹⁾ 반해 우울자들은 비극적 행위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행위 자체의 불가능성에 빠져 있다. 손창섭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그가 다루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비정상적인 인물들뿐이다. 그에게는 감정도 울분도 없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대인관계라든가, 또는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심하게는 혈연 관계까지도 회의하게 되어 소외감을 느끼고 외톨이가 되는 것이다. 사회적인 행사인 결혼도 하나의 굴레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손창섭의 인물들은 자신의 내부에 자리잡은 자아의 갈등으로 인해 병들어 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나'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나'의 불일치는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폐병, 성불구, 간질, 나병, 다리 불구 등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는 손창섭 소설의 인물들은 '인식과 행위, 영혼과 형상, 자아와 세계사이에 메울 수 없는 심연'을 두고 있는 전후 실존주의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전후의 처참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못해 정신적

Jaspers(신일철 역), 『비극론』, 신조문화사, 1969, 44-46면.

10) 벤야민에 따를 때, 고대비극의 주인공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 즉 내적인 자기 발견 속에서 의지에 의해 죄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죄에 대한 자부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바, 고대비극의 주인공의 죽음은 신화적 운명을 초월하는 '예외적 죽음'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데 반해, 근대비극의 주인공의 죽음은 단순한 자연의 무상성의 표현으로서 운명에 대한 종속만을 의미하는 '의명적 죽음'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W.Benjamin, *The Origin of German Tragic Drama*, NLB, 1977, 131-132면, M. Pinsky, *Melancholy Dialectics: Walter Benjamin and Play of Mourning*,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3. 79-80면.

11) G.W.F. Hegel(두행숙 역), 『헤겔미학Ⅲ』, 나남출판, 1996, 684-685면.

으로 병든 인간들의 구체적이 상징이다. 따라서 우리는 손창섭 소설을 통해 인간주체의 무의미와 무력하고 불안한 인간의 실존을 만날 수 있다. 우울자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공휴일」의 도일, 「생활적」의 동주와 「미해결의 장」의 지상, 「유실동」의 지상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손창섭 소설의 우울자들은 영원한 것에 절망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불행의식, 운명의식, 죄의식의 외 삶에 대한 공허(권태)와 그로 인한 행동 능력의 상실이라는 우울자 특유의 면모를 주로 보여준다.

(1) 짧은 남녀간의 애정이라면 대뜸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리만큼 되어 있는 요지음에 있어서 자기처럼 그 문제에 냉담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역시 생리적인 결합에는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권태증은 이성문제나 결혼 문제에 한해서 뿐은 아니었다. 자기를 둘러 싸고 있는 원각 인물들에게 도일은 흥미도 애정도 느껴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만 그에게는 의무만이 있을 뿐이었다. 아들로서, 친구로서, 은행원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만을 감당해 나갈 뿐이었다.(밀줄-인용자)¹²⁾

(2) 성적 흥분을 거의 상실하다시피 한 東周는 당장도 저녁 준비를 하노라고 눈앞에 서서 돌아가는 春子の 정력적인 육체를 바라보다가 부지중 「아아」 절망을 발음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누가 발길로 지르기라도 하듯 맥없이 모으로 쓰러지는 것이었다. 사지를 오그리고 눈을 감았다. 무덤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흙으로 덮어주리라 느껴지듯, 산다는 것의 무의미와 우울이 팽팡 소리를 내어 다지는 것처럼 전신을 내려 누르는 것이었다. 東主는 사뭇 안까늬를 하다시피 무엇을 참고 견디어낸 것이었다.(밀줄-인용자)¹³⁾

(3) 아무리 궁리해 보아도 나는 집을 떠나야만 할가부다. 그것만이 우선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해결일 듯 싶게 생각되는 것이다. 그 '해결'이라는 말은 더할 나위 없이 내 맘에 꼭 드는 것이다. 그 말은 충분히 나를 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나는 언제나 되면 노상 집을 떠날 수 있을 것인가? 하루에 몇 번씩 혹은 몇십번씩 '해결'을 생각하고 거기에 도취하면서도 종시 나는 해결을 짓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도무지 주위와 나를 어떠한 필연성 밑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이 밖에 있어서 내 위치와 친구들과의 관계부터가 그러하다.(밀줄-인용자)¹⁴⁾

12) 손창섭, 「공휴일」, 「문예」, 1952.6, 198면.

13) 손창섭, 「생활적」, 『비오는 날』, 일신사, 1959, 84-85면(「현대공론」, 1953.11)

14) 손창섭, 「미해결의 장」, 169면.

(1)에서 나타나듯 「공휴일」의 도일은 권태증에 사로잡혀 이성,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 대해 애정도 흥미도 갖지 못한다. 그는 자신과 금순의 결합을 미꾸라지와 붕어의 결혼, 즉 “틀림없는 일종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¹⁵⁾하면서 파혼을 결심한다. 우울자는 실존적 공허 속에서 주위 세계와의 관계 상실과 감정 상실에 이르는데, ‘자기를 둘러 싸고 있는 온갖 인물들에게 흥미도 애정도 느껴지 못하는’ 도일의 상태는 우울자 특유의 ‘정서적 감정의 빈곤화’를 보여준다. 「생활적」의 동주에 이르면 우울자의 감정 결핍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진다. (2)에서 나타나듯 동주는 ‘무의미와 우울이 전신을 내리 누른다’는 심정 속에서 어떤 의미있는 행위의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하고 삶을 그저 견디어내고 있을 뿐이다. 동주는 죽어가는 순이를 제외하고는 주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나 애정을 상실하고 있으며, “갈레조각”, “목석”, “잊혀진 물건” 등¹⁶⁾에 비유되면서 무생물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간다. 그는 우울, 불안의 감정 속에서 주위세계에 대한 관심과 감정을 상실하는, ‘무감정의 감정이라는 역설적 심정성’(die paradoxe Befindlichkeit des Gefühllosigkeit)에 처해 있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행위 자체의 마비, 불가능에 도달하고 있다.¹⁷⁾ 동주는 춘자와 봉수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그리고 우물물에 똥을 넣었다는 누명에 대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며 폐병환자인 순이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삶을 참고 견디어 낼 뿐이다. 「미해결의 장」 지상 역시 “나는 도무지 주위와 나를 어떠한 필연성 밑에 연결시키지 못한다”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진성희, 가족 등으로 대변되는 주위세계와의 유의미한 관계를 상실하고 있으며 ‘비’로 상징되는 우울에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이나 영혼가지도 꿀쩍하니 젖어”¹⁸⁾있다. 지상은 ‘인생의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생활적」의 동주와 다르지만, 그 역시 창녀 팽순의 미소에 매료되어 그녀의 집을 찾아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의미있는 행동, 어떤 해결책도 발견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동주와 동일하다.

그러나 동주와 지상이 행동 능력의 부재는 단순히 울증의 병리학적 증상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대재난으로

15) 손창섭, 「공휴일」, 203면.

16) 손창섭, 「생활적」, 64면, 75면, 88면.

17) L.Heidbrink, *Melancholie und Moderne*, München, 1994, S. 47.

18) 손창섭, 「미해결의 장」, 185면.

서의 전쟁체험에 입각해 근대 이후 인간이 처한 실존적 상황에 대한 통찰, 즉 인간적 행위의 모든 가치가 박탈되고 세계가 공허해졌다는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대재난으로서의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적 행위에서 모든 가치가 박탈되고 그 결과 공허한 세계가 등장했을 때, 근본을 사고하는 자에게 성실하고 정직한 삶이라는 모랄은 삶의 공허를 구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의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중도반단의, 진정성 없는 행위의 축적을 의미하게 된다.¹⁹⁾ 손창섭 소설에서 우울자는 한편으로는 병들어 있는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병적 상태가 오히려 정신적 지각 능력의 강화를 낳아 정서적 인식적 차원에서 세계의 본성에 대한 통찰에 이른 자이다.²⁰⁾ 그 통찰의 내용으로 제시되는 것이 '공허한 세계'이고 우울자는 그러한 세계에서 어떤 의미있는 행위도 발견할 수 없기에 행동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1)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죽어야만 할 것 같어. 내 병이나 光順의 운명은 도저히 동정이나 위로만 가지구는 해결할 수 없지 않는가?" "해결?"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것은 뜻밖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文先生에게 해결이라는 말을 들으리라고는 예견치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내 도로 누워 버리고 말았다. 이 방안의 공기도 역시 우리집이나 매 일반적으로 무거운 것이었다. "文先生! 당신은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이지. 죽기만 하면 만사는 마지막이니까!" "물론이라고요? 그래 당신이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진단 말입니까? 당신만 없어지면 그래 지구덩이의 피부병이 완치된다 말입니까?"²¹⁾

(2) 역센 사투리를 쓰는 아주머니들은 우울에 똥을 퍼다 넣은 사람이 틀림없이 東周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東周가 아니라고 변명을 한 대야 끈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 아니냐. 아무 대답이 없이 동주는 벽을 향해 도로 얼굴을 돌려 버리고 말았다.(중략) 東周는 그저 무거웠다. 원몸둥이가, 그리고 이 구린내 나는 공기가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견디어 내는 수밖에 달리 어쩔 수 없지 않느냐? 順伊의 신음 소리에 간신히 자기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東周는 그대로 하루가 또 저물어

19) 벤야민은 이러한 근대의 공허가, 한편으로는 도덕적 시민생활을 설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을 신의 은총에 위임함으로써 선업을 부정하는 루터파 신교의 이율배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W. Benjamin, 앞의 책, 138-139면.

20) M. Pensky, 앞의 책, 21면.

21) 손창섭, 「미해결의 장」, 『현대문학』, 1955.6, 193면.

야 하는 것이다.²²⁾

「미해결의 장」에서 가족들은 미국 유학(사회적 출세)을 지향하면서 극도의 궁핍을 견디어 나가며 진성회 회원들은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끼리 모여, 국가 민족과 인류 사회를 위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일을 하다가 죽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족, 진성회가 추구하는 가치들과 그에 입각한 행위들은 우울자인 지상에게 삶의 진실을 위장하는 허구이다. 문선생은 진성회 회원들에게 광순의 윤락생활을 고백하고 죽음으로써 속죄해야 한다면 울음을 터뜨린다. 문선생의 일련의 행위와 의식은 도덕적 가치의 추구에 핵심이 있다. 그러나 인용문 (1)에서 드러나듯 우울자인 지상에게 진실과 성실이라는 도덕적 가치의 추구에서 비롯되는 문선생의 결심은 “내 병이나 광순의 운명”, 즉 위장병으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채, 누이동생에게 생존을 의존해야 하는 문선생의 운명이나 가족의 생존을 위해 윤락 생활을 해야 하는 광순의 운명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가족들은 재봉틀을 빼앗김으로써 더욱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진성회 회원인 문선생은 누이동생의 타락한 윤락 생활로 생존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지상에게 삶의 진실은 비참함이며 이 운명적 비참함 앞에 가족과 진성회의 노력은 무의미하다. 지상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은 박테리아다. 인간이란 존재는 지구에 전혀 보탬이 안되는 일개 병균에 불과한 것이다. 그가 침을 뱉는 행위에서 세상에 대한 혐오감을 엿볼 수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은 박테리아다. 인간이란 존재는 지구에 전혀 보탬이 안되는 일개 병균에 불과한 것이다. 그가 침을 뱉는 행위에서 세상에 대한 혐오감을 엿볼 수 있다. (2)에서 동주는 우물물에 똥을 넣었다는 누명을 썼을 때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다. 동주는 “무덤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흙으로 덮어 주리라”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살아 있으면서도 죽어 있는 “목석”과 같은 존재, 이미 생명력을 상실한 존재로서 아예 행위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간다.

지상과 동주가 공허한 세계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행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고 할 때, 그들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곧 도덕적 가치나 삶 자체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

22) 손창섭, 「생활적」, 91-92면.

다. 「미해결의 장」의 지상과 「생활적」의 동주는 물론, 「사연기」의 동식이나 「유실몽」의 철수의 경우도 비록 행동 마비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정숙의 자살을 방조(동식)하고 교원자격시험준비를 위한 춘자의 도움 요청을 거절(철수)하는 등 도덕적으로 가치있는 일에 대한 거부를 표현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우울자들에서 나타나는 행동마비나 행동거부는 결국 도덕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나, 善業의 거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울자 특유의 '나태(acedia)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태에 빠져 있는 동식, 지상, 철수 등은 윤리적 종교적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나태라는 죄에 빠져 선을 거부하는 악마적 성격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²³⁾ 벤야민에 따르면 멜랑콜리는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태만'이라는 치명적인 죄, 즉 '나태(acedia)'를 의미하며 우울의 정신은 결국 악마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동식, 지상, 철수 등 우울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인물들은 악마적인 것으로서의 우울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이 동주와 도일의 침묵이다. 동주는 (2)에서 나타나듯 자신의 우울자로서의 면모가 병신으로서 여겨질 뿐 이해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마을사람들에 대해 침묵하며 「공휴일」의 도일 역시 일상적 삶에 대한 자신의 권태감이 이해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침묵한다. 도일은 옛 약혼자의 청첩장에 낙서를 하여 부고인 것처럼 만든다. 이를 본 누이가 옛 약혼자를 원망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성가시러워 또한 아무리 애써 설명한것자 자기의 심경이 고대로 저쪽에 수궁될 까닭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잠자코 소처럼 멧웃이 씩 웃어”²⁴⁾ 보일 뿐 말을 하지 않는다. 언어적 소통을 거부하고 자신 속에 첩거하는 그들의 모습은 악마적 인물의 '폐쇄적 침묵(das Verschlussene)'을 보여준다. 악마적 인물은 죄 속에 있으면서 선을 거부하는 데 본질이 있으며 선에 대하여 스스로를 감추려는 성격을 갖는다. 그들에게 선은 드러냄을 의미하며 이는 언어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그들은 스스로를 은폐시키는 폐쇄적 침묵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²⁵⁾

23) 벤야민은 비애극의 군주와 廷臣을 이와같은 나태에 의해 지배되는 인물로 간주한다.

W.Benjamin, 앞의 책, 138-139면. 155면.

24) 손창섭, 「공휴일」, 195면.

25) 키에르케고르는 악마적인 것을 '선에 대한 불안'이라는 장에서 다루고 있다. 악

폐쇄적 침묵은 불행과 죄만을 강요하는 신화적 운명의 직접적인 희생자들인 여자 주인공들에게 더욱 명확한 형태로 나타난다. 「사연기」의 정숙은 “피로와 슬픔이 안개처럼 낀” 눈빛으로만 말하며, 「비오는 날」의 동옥은 원구와의 대면에서 “고개만 끄덕”할 뿐 말을 하지 않는다. 정숙과 동옥의 침묵은 심미적 슬픔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악마적인 인물의 폐쇄적 침묵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숙과 동옥의 형상은 「미해결의 장」의 지숙과 「유실몽」의 춘자로 이어지는데, 이들은 “백지에 먹으로 그린 초상화 같은 여인”(동옥), “언제나 양초처럼 희기만 한 얼굴”(지숙), “종이처럼 흰 얼굴”(춘자) 등의 비유에서 드러나듯 인간적 활기를 상실하고 화석된 인물로서 좀처럼 말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백지, 양초, 종이에 대한 비유가 사물로 전락한 인간의 운명적 비참함과 그에 대한 고통의 표현이라면 침묵은 이에 대한 인간적 저항이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운명의 결과로서 비참함에 빠진 인간은 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인간으로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신화적 운명과 자연적 죄에 대한 침묵으로써 저항하는 것이다. 간질병 환자인 「혈서」의 장애와 폐병환자인 「생활적」의 순이는 가장 극단적인 예이다.

(1) 돌부처 이상으로 무표정한 소녀였다. 표정뿐만 아니라 언어와 거동도 그랬다. 누가 묻든 말에나, 그것도 두 번에 한번 정도 마지못해 대답할 뿐, 그밖에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는 일이라고는 없었다. 또한 몸도 움직이기를 싫어했다. 끼니때에 밥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 외에는 돌맹이처럼 늘 똑같은 자세로 방 한구석에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이었다. (중략) 숨을 죽이고 떨리는 손을 昌愛의 얼굴로 가져간다. 잡히지 않으려 하고 昌愛의 코를 쥐어본다. 그러나 뜻밖에도 잡힌다. 達壽는 그만 질겁을 해서 팔을 움츠른다. 그래도 어찌자고 昌愛는 동일한 자세를 흉크리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다. 달수는 전신에 식은 땀이 죽 내번지는 것이었다. 도리어 達壽에게는, 昌愛가 거품을 물고 지랄을 버릇을 때에 훨씬 더 인간이 느껴지는 것이다.(밑줄-인용자)²⁶⁾

마적인 것의 내용은 지루함과 공허함이며 그 형식은 폐쇄적 침묵이고 시간적 특성은 갑작스러움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는 항상 의사소통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은폐시키려는 악마적인 것은 언어를 멀리하게 된다. S. Kierkegaard, 『불안의 개념』, 한길사, 1999, 331-339면.

26) 키에르케고르는 악마적인 것을 '선'에 대한 불안'이라는 장에서 다루고 있다. 악마적인 것의 내용은 지루함과 공허함이며 그 형식은 폐쇄적 침묵이고 시간적

(2) 뒷간 출입도 온전히 못하는 順伊는 진종일 누운채 그 무겁고 단조로운 신음소리를 내는 일이었다. '으응, 으응, 으응' 그것은 마치 무덤 속에서 송장이 우다면 저러러니 싶은 듣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생각게 하는 안담한 소리였다. 처음 듣는 사람이면 누구나 소름을 돋힐 것이다. (중략) 東周는 종내 어느날 順伊에게 물어보았다. "너 어찌서 그렇게 밤낮 신음소리를 지르니? 그렇게 죽어오게 아프나" 順伊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심심해서 못 견디겠는 걸." 그때부터 東周는 무겁고 안담한 順伊의 신음소리를 아껴주기로 한 것이다. 그 신음소리는 머지 않아 죽을지도 모르는 順伊의 최선을 다한 생활이었기 때문이다.(밑줄-인용자)²⁷⁾

「혈서」의 창애는 누가 묻는 말에나 마지못해 대답할 뿐 스스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며 마치 돌부처와 돌멩이처럼 무생물로 존재한다. 「생활적」의 순이는 무덤 속의 송장처럼 '으응, 으응, 으응'하는 신음소리를 낸다. 폐쇄적 은폐, 즉 침묵은 언어를 거부하는 제스추어, 독백, 눈빛, 표정 뿐만 아니라 내적 상태와 어긋나는 기만적 외적 표현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²⁸⁾ 순이의 신음소리, 「미해결의 장」의 창녀 광순의 미소 역시 일종의 침묵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창애와 순이, 광순은 모두 인간의 언어를 거부하고 침묵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창애와 순이의 침묵이 각각 간질병과 폐병이라는 육체적 질병에서 비롯된다면, 정숙과 동옥의 침묵은 주로 역사의 폭력으로 인한 고통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간질병과 폐병 역시 이유 없는 삶의 비참함을 의미한다고 할 때, 그들 모두는 삶의 비참함과 고통으로 인해 침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스추어(창애)와 동물적 소리(순이)는 또 하나의 침묵으로서 죄와 운명을 거부하는 인간적 저항을 의미하며, 창녀 광순의 미소는 운명적 비참함 앞에 죄의식을 갖지 않는 인간의 악마적인 미소라고 할 수 있다.

특성은 갑작스러움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는 항상 의사소통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은폐시키려는 악마적인 것은 언어를 멀리하게 된다. S. Kierkegaard, 「불안의 개념」, 한길사, 1999, 331-339면.

27) 손창섭, 「생활적」, 65-66면.

28) 침묵의 핵심은 내면적 상태와 외적 표현이 통합되어 있는 실존적 언어를 거부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키에르케고르에게는 무의미한 말을 의미하는 잡담(chatter) 역시 침묵에 해당한다. R.Lall, "Language and Freedom: Kierkegaard's Analysis of the Demonic", *The Concept of Anxiety, International Kierkegaard Commentary*, ed. R.L.Perkins, Mercer, 1985, 165면.

동주, 지상, 철수, 도일 등은 영원한 것에 절망하는 자들로서 우울자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태와 침묵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불행, 죄, 운명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울자들은 중국에는 나태와 침묵에 이르게 되며 나태와 침묵의 악마적 성격은 우울자의 근본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울자의 악마적 성격은 윤리적 종교적 차원에서는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지만 심미적 차원에서는 하나의 저항, 즉 살아 있음 자체에 대해 불행과 죄만을 강요하는 운명적 비참함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처럼 선업과 도덕적 가치를 부정하고 악마적 저항을 시도하는 우울자가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물리적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살아 있음 자체이다.

(1) 마침 鳳洙가 우동가게를 하자고 하니 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오늘 낮에 鳳洙와 함께 가게를 가보았는데 목도 좋더라는 것이다. 자기는 요리솜씨에도 꽤 자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연 인기를 끌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당신도 아침 저녁 가게에 내려와서 구미에 당기는 걸로 식사를 하라는 것이다. 운동도 되고 영양도 보충될 터이니 차라리 건강이 회복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한 말을 東周는 흥미없이 그냥 듣고만 있었다. 그것은 順伊의 신음소리 만큼도 東周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다만 '줄집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보겠다'는 한마디만이 東周의 귀에 귀지처럼 걸렸을 뿐이다. 그는 한숨 쉬듯 입속으로 그 한마디를 중얼거리며 보고, 그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실없이 놀라운 부피 앞에 위압을 느끼는 것이었다.(밀줄-인용자)²⁹⁾

(2) 나는 光順에게 善玉을 소개했다. "善玉에게 무엇보다도 직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직업을 구하지 못해 날마다 우며 지냈습니다. 직업이란 청운의 뜻보다도 소중한 모암입니다." 나는 그런 말을 덧붙인 것이다. 누구 앞에 서고 제 사정 얘기나 남의 내막 얘기에 언급하는 일이 없는 光順은, 역시 아무 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웃는 낯으로 善玉을 바라볼 뿐이었다. 방안에 들어와서부터 善玉은 차츰 풀이 격이었다. 그는 기운이 없는 눈으로 光順의 시선을 피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일부러 외면하고 善玉이나 나는, 점심 저녁 두끼를 굶고 있다고 光順에게 말했다. 그러자 光順은 두끼쯤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놓고 光順은 골목 밖에 있는 음식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 것이다. 거기서 나는 지난번처럼 비빔밥을 먹으면서, 善玉은 취직이 되겠지만, 나는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해 본 것

29) 손창섭, 「생활적」, 87면.

이다. 나는 갑자기 善玉이가 부러워지는 것이다.(밀줄-인용자)³⁰⁾

「생활적」의 동주는 춘자의 “좀더 즐겁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보겠다”는 말에 대해서 ‘실없이 놀라운 부피’를 느낀다. 성과 돈만을 추구하는 춘자와 봉수의 삶을 고려할 때, 춘자의 말은 즐겁게 살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우울자 동주는 성과 돈만을 아는 춘자와 봉수의 동물적 삶에 대해서 우울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동물적 생존의 욕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우울자의 이러한 면모는 「미해결의 장」의 지상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지상은 미국 유학의 꿈을 포기하여 우유죽 대신 밥을 먹을 수 있기를 바라고 청운의 뜻보다 직업이 중요하다면서 선율을 매음녀 광순에게 소개한다. 이때의 직업이란 구체적으로 윤락생활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윤리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생존을 위해 인간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노동을 의미한다. 이는 전후 사회에서 생존이 최우선의 과제로 다가왔음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더욱 근본적으로는 살아 있음이라는 인간 조건에 상응하는 인간활동으로서의 노동의 필연성, 즉 생물학적 신진대사를 위해 생명 필수재를 필요로 하며 이를 얻기 위한 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한편으로는 윤리와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먹고 자고 배설하는 육체적 영역, 감각적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연적 물리적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점에 있다. 결국 춘자의 말에 대한 위압을 느끼는 동주나, 인간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에 상응하는 활동으로서의 노동만이 중요하다고 보는 지상은 모두 자연적 물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인정 그리고 도덕적 가치와는 무관한 살아 있음 자체에 대한 인정을 표현하고 있다. 삶을 그저 견디어내야 할 것으로만 간주하면서 가치있는 행동을 거부하는 우울자의 나태 역시 이에 대한 표현이다. 우울자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죄는 궁극적으로는 살아 있음 자체의 죄, 자연적 죄를 의미한다. 우울자들의 나태와 침묵은 결국 이러한 죄와 불행만을 강요하는 운명적 비참함에 대해 자연적 물리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그들의 살아 있음 자체를 유일하게 의미하는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일종의 저항을 시도하고 있는

30) 손창섭, 「미해결의 장」, 194면.

것이라 할 수 있다.³¹⁾

Ⅲ. 자연적 삶에 대한 긍정으로서의 희극성

손창섭의 소설은 「假父女」(『자유문학』, 1958.1) 「孤獨한 英雄」(『현대문학』, 1958.1) 「雜草의 意志」(『신태양』, 1958.8)를 거치면서 인간에 대한 부정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가치지향적인 인간”을 형상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²⁾ 인간에 대한 긍정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그의 소설의 핵심적인 미의식인 희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손창섭은 동물적 인간의 경우 그들의 도덕적 무구성을 주장함으로써, 그리고 우울자의 경우 불행과 죄의식만을 강요하는 운명적 비참함에 대항하는 내태와 침묵, 즉 악마적 저항을 형상화함으로써 기존의 시민적 인간성에 대한 거부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긍정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으로서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희극성 역시 자연적 삶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손창섭 소설의 특성의 하나는 불행과 죄만을 강요하는 신화적 운명과 그로 인한 우울, 슬픔의 감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희극성, 웃음의 감정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창섭 소설의 이중적 모습은 당대 비평가들로부터 이미 지적되었다. 등장인물의 특이성으로 인해 당대 비평은 인물분석이 주를 이루었는데, ‘육체적 정신적 불구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은 일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절망적 인간들”, “비극성”³³⁾을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장 회화”, “회화적 묘사”³⁴⁾를 강조하기도 하였

31) Rochlitz에 따르면 우울은, 피조물의 삶을 죄진 삶으로 규정하고 삶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금욕적 삶에 대해 나타나는 치명적인 죄를 범함으로써 저항하는 삶 자체의 반역이다. R. Rochlitz, *The Disenchantment of Art: The Philosophy of Walter Benjamin*, trans. J.M. Yodd, The Guilford Press, 1996, 98면.

32) 조남현, 「손창섭의 소설세계」, 『한국현대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1993, 119면.

33) 조연현, 「병자의 노래 : 손창섭의 작품세계」, 『현대문학』, 1955.4, 77면.

다. 이러한 이중성은 추천작인 「공휴일」과 「사연기」 두 작품에서부터 뚜렷이 나타난다. 「공휴일」의 「도일」은 권태에 사로잡혀 있으며 회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 「사연기」의 동식은 주위세계에 대해 슬픔과 우울만을 느끼며 절망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동일한 대상, 즉 죄의식과 불행만을 강요하는 운명적 비참함에 대한 상이한 접근 방식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그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웃음과 회극성은 신화적 운명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띠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동물원초」의 등장인물들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손창섭은 당대의 인간의 존재상황을 한편으로는 자기 보존, 동물적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푸른 하늘을 사모하는 존재, 즉 도덕적, 인간적 가치를 갈망하는 존재라는 데서 찾았다. 이는 손창섭이 근본적으로 인간존재를 자신들의 현실적 상황(유한자)과 추구하는 것(무한성)간의 모순에 처해 있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인간존재의 부조화, 모순(incongruity, contradiction)에서 인간적 삶의 현실적 상황(유한자)에 집중하고 인간적 삶이 추구하는 것(무한자)이 대표적 기준으로 후경으로 남겨질 때 웃음과 회극성이 발생하고 그 반대의 경우 절망과 울음이 발생한다.³⁵⁾ 「유실몽」의 춘자와 「혈서」의 달수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 그래도 春子は 무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원 자격을 얻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다. 점점고시에 합격하는 것만이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는 모양이었다. 거기에 영양부족도 겹쳐서 자연 春子は 여위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묘한 것은 것처럼 축진 얼굴이나 몸집이 조금도 매력을 잃지 않는 일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春子の 가느다란 몸을 힘껏 끌어 안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나는 春子를 껴안은 채 자꾸만 울었다. 인제는 하는 수 없다고 중얼거리며 나는 꿈연히 서러워 울었던 것이다.(밑줄-인용자)³⁶⁾

34) 윤병로, 「혈서의 내용」, 『현대문학』, 1958.2, 239면.

35) J.E. Hare, "The Unhappiness One and Structure of Kierkegaard's Either/Or", *International Kierkegaard Commentary: Either/Or I*, ed. R.L. Pekins, Mercer, 1995, 91-97면.

36) 손창섭, 「유실몽」, 「사상계」, 1956.3, 282면.

(2) 그래서 나는 한 군데서는 이삼일 뒤에 한번 들려보라고 그랬는데, 하고 항변해 보는 것이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俊錫은 대뜸 이마에 핏줄을 세우드니, 이 자식이 미쳤어? 하고 벌떡 일어나 앉는 것이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 민중아 그래 그 말을 믿구 있어? 곧장 이삼일 뒤에는 취직이 될 줄 알어? 어디 배찌기 내기라두 할까? 이 멍터구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거야. 그렇게 만만히 취직이 될 줄 알어? 하고 몰아세우는 것이었다. 이런 때 達壽의 얼굴은 그지없이 난처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울음과 웃음이 반반씩 섞인 운명적인 표정인 것이다.(밑줄-인용자)³⁷⁾

「유실몽」의 춘자는 생존에도 급급한 현실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것만이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고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감내한다. 춘자의 경우 현실적 유한성과 「취미와 재능을 살리는 가치 있는 생활」에 대한 추구의 모순 가운데 후자가 주로 전경화된다. 이를 통해 그녀의 삶은 철수의 “꿈 속에서 나는 춘자를 꺼 안은 채 자꾸만 울었다.”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바라보는 사람에게 절망과 슬픔을 자아내게 만든다. 손창섭 소설에서 여주인공들은 주로 절망과 울음을 자아내는 인물로 묘사되는데, 「사연기」의 정숙, 「비오는 날」의 동욱 그리고 그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해결의 장」의 지숙, 「유실몽」의 춘자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숙과 동욱이 전쟁·역사 혹은 육체적 불구성이라는 좀더 특수한 운명적 힘의 고통을 표현한다면 지숙과 춘자는 생존에도 급급한 현실적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미국 유탕의 꿈과 교원자격에 대한 꿈)을 추구하는 모순적 삶, 인간 존재 자체의 고통과 절망을 표현한다.

동일한 모순, 부조화된 현실적 유한성이 전경화될 때 회극성과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비오는 날」의 동욱, 「혈서」의 달수, 「미해결의 장」의 문선생, 그리고 「낙서족」의 ‘도현’ 등은 대표적인 예인데, 특히 「혈서」의 달수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달수는 성공에 대한 꿈을 안고 고학으로 학교를 다니려 하며 이를 위해 취직을 시도하지만 매번 헛수고에 그친다. 인용문(2)에서 “한 군데서는 이삼일 뒤에 한번 들려보라고 그랬”다는 달수의 항변은 달수의 현실적 무능력을 나타낼 뿐이다. 달수의 상황은 “이자식이 네가 고학생이야? 거지지 무슨 고학생이야. 그래 거지가 대학엘 가?”³⁸⁾ 라는 준석의 비판,

37) 손창섭, 「혈서」, 「현대문학」, 1951, 176면.

즉 고학자가 아니라 거지, 기피자에 불과하다는 준석의 비판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는데, 고학생과 거지 간의 부조화, 구체적으로 '고학·취직에 대한 희망'과 '아무 가계나 들어가 취직을 부탁하는 현실적 무모성'간의 부조화 중 후자가 진경화됨으로써 웃음을 자아낸다. 창녀인 여동생의 수입에 의존해 생존하면서 죄지었다고 느끼는 문선생(「미해결의 장」)이나,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술을 사랑하는” 동욱(「비오는 날」) 역시 현실적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다.

특이한 점은 그 부조화가 인용문 (2)의 “그것은 울음과 웃음이 반반씩 섞인 운명적인 표정”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웃음과 동시에 고통(울음)을 수반하는 인간존재의 운명적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를 때, 회극적인 것이란 주관성의 우월함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부조화, 모순(incongruity, contradiction)의 표현으로서 여기에서 유발되는 웃음은 고통(suffering)이라는 감정을 동반한 웃음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손창섭 소설에서 제시되는 회극적인 것은 비록 종교적 내면성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지만, 달수의 예에서 드러나듯 인간존재의 부조화에서 비롯되며, 고통을 동반한 웃음을 자아낸다는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실존적 모순에서 비롯된 심미적 범주로서의 회극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³⁹⁾

또한 손창섭 소설의 회극성은 주관성의 우월함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타인에 대한 자신의 우월감을 표현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회극적인 것에서는 벗어나 있다. 일인칭 시점으로 쓰여져 있는 「미해결의 장」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미해결의 장」에서 「진성회」 회원인 아버지, 문선생, 장선생 등은 회극적 존재, 즉 “국가, 민족과 인류 사회를 위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일을 하다가 죽자”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38) 손창섭, 「혈서」, 177면.

39) 키에르케고르에 따를 때, 회극적인 것과 비극적인 것은 모두 실존적 모순에서 비롯된 심미적 범주이다. 회극적인 것은 그 모순을 외적인 조건 탓으로 이해하는 경우와 내적 조건 탓으로 이해하는 경우에 따라 서열화되며 궁극적으로 종교적 내면성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손창섭의 소설에 나타나는 회극성은 종교적 내면성을 지향하고 있지 않지만, 전자(외적 조건)와 후자(내적 조건)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S. Walsh, 앞의 책, 217-221면.

없어 식구들에게 기생하여 살아가는 회극적인 존재들로 묘사되는데, 이를 바라보는 존재가 지상이라는 점에서 지상이 이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상 자신 역시 스스로에 의해 회극적인 존재로 묘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그제서야 나는 큰일 난 듯이 光順의 소매를 붙잡는 것이다. “난 돈이 필요한데요. 돈이 말입니다. 꼭 돈이 좀 있어야겠단 말이에요.” 光順은 서슴지 않고 또 삼 백 환을 꺼내 주는 것이었다. “아닙니다. 光順이는 날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큰 돈이 좀 필요합니다.” 광순은 잠시 내 얼굴을 쳐다보다가 “얼마요?”하고 말했다. 光順은 나를 잘 몰라줍니다. 나는 큰 돈이 있어야 합니다. 재봉틀두 찾아야 하구, 동생들의 미국 갈 비용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光順에게 할 말이 아니라구 깨달았다.⁴⁰⁾

(2) 그들의 입에서는 술내가 풍기었다. 나는 결코 유리할 수 없는 사건을 각오했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겁나지 않았다. “우리를 무얼루 아는 거야?” 연거푸 다른 놈이 “왜 버릇없이 구는 거야.” 나는 이제 된 판인지 영문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건방진 자식……. 光順일 함부로 건드리지 말란 말이야.” 순간 나의 오른편 귀청이 왕하고 울렸다. 눈에서는 불이 튀었다. 그것은 고무장갑 같은 손이 아니었다. 내가 왼쪽으로 비틀거리자 이 번엔 왼쪽 따귀에서 짹 소리가 났다. 연달아 주먹과 발길이 무수히 내 몸뚱이에 떨어졌다. 어디를 어떻게 얻어맞았는지 나는 분간할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신을 잃지는 않았다. 턱과 손에 끈적거리는 선혈을 의식하면서 무의식중에 나는 「光順이! 光順이!」 하 고 신음소리를 불러보는 것이었다.⁴¹⁾

인용문 (1)과 (2)는 지상이 재봉틀을 빼앗겨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자 광순에게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급기야는 괴청년들의 구타 속에서 쓰러지는 결말 부분이다. 지상은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도 창녀 광순의 이부자리만 찾아가는 존재로서 재봉틀을 빼앗겼을 때 광순에게 큰 돈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그의 부조화 즉 회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보들레르가 주장한 바 있는 절대적으로 회극적인 것의 차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들레르는 상호주관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주체에 대한 한 주체의

40) 손창섭, 「미해결의 장」, 195면.

41) 손창섭, 「미해결의 장」, 195면.

우월성을 표현하는 통상적으로 희극적인 것(the sighificative comic)과 이를 넘어서는 절대적으로 희극적인 것(the absolute comic)을 구별하는데⁴²⁾, 후자의 핵심은 주체간 관계가 아니라 한 주체 내에 존재하는 열등함과 우월성을 표현한다는 데 있다.⁴³⁾ 「미해결의 장」의 서술자 자신에 대한 희극적 묘사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서술자 자신의 열등함을 표현하고 있다. 괴청년들에게 맞아 쓰러지는 자신에 대한 담담한 묘사에서 드러나듯 그의 소설의 희극성과 웃음은 근본적으로 타자의 넘어짐이 아니라 자신의 넘어짐을 바라볼 때의 웃음을 표현한다. 손창섭 소설의 희극성이 근본적으로 주체 자신의 전복과 열등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술자 자신이 희극적 대상이 되지 않는 여타의 작품의 경우 작중인물들의 희극성이 인간존재 자체의 유한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즉 미련하게 취적운동을 하는 「혈서」의 달수, 헛되이 민족과 인류를 위해 살다가 죽자고 주장하는 「미해결의 장」의 아버지와 문선생, 무모한 융합성으로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는 「낙서족」의 도현 등은 객관적으로 볼 때 수정 가능한 무능력들 때문에 희극적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무능력은 그들 당사자들에게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인간 인간존재의 유한성을 표현하는 무능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존재의 유한성은 곧 시민적 인간성의 한계를 의미하는 바, 손창섭 소설의 희극성은 궁극적으로 시민적 인간성에 핵심이 있는 근대적 주체성 자체의 전복, 열등함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손창섭 소설의 희극성이 타자가 아니라 주체 자신의 열등함을 표현하고 자신의 전복에서 발생하는 웃음을 표현한다고 할 때, 그 웃음을 통해 비판하는

42) 보들레르는 통상적으로 희극적인 것의 경우 인간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표현하고 사회적 풍습에서 유래한다고 본다. 반면 절대적으로 희극적인 것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표현하며 원초적 것에서 유래한다고 본다. C.Baudelaire, "Of the Essence of Laughter, and generally of the Comic", Baudelaire : *Selected Writings on Art and Artists*, trans. P.E. Charve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150-161면.

43) Paul de Man은 이를 아이러니의 본질이라 본다. 그에 따르면 이때의 주체의 우월성은 한 주체 내의 경험적 자아와 아이러니 자아간으 공간적 거리 모든 종류의 반성행위로 이루어지는 거리를 의미한다. 우월성과 열등함은 한 주체에 내재하는 차원들의 복수성을 지시한다. Paul de Man, "The Rhetoric of Temporality", *Blindness & Insight*, 2nd Edition, 1983, 213면.

것은 궁극적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있다는 근대적 인간의 허구적 자만심이다. 『낙서족』의 도현은 이를 전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 도현은 골목 어구에 우뚝 서 있었다. 그것은 처참한 인간의 그림자였다. 전신을 적시고 드는 울분과 절망감. 도현은 한방울 비어진 눈물을 섬뻛하고 짜 버리고 돌아섰다. 몇 발짝 옮기는데 눈 앞에 다가서는 전봇대가 있었다. 수상한 사내가 몸을 기대고 섰던 바로 그 전봇대다. 순간 도현은 구원을 느끼었다. 그의 눈이 투우의 눈으로 변했다. “에이 쌍!” 소리와 함께 발이 땅을 차고, 도현의 이마는 어느새 “딱”하고 전봇대를 들이 받았다.⁴⁴⁾

(2) 인간의 가치란 경찰이 중요시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미묘한 해석을 갖게 되었다. 도현은 우선 자기가 유가치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빈 껍데기에 알맹이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알맹이는 말할 것도 없이 눈부신 ‘행동’이다. 대사회적 행동. 대국가적인 행동. 도현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상회도 나에게 친밀감과 호의를 베푸는 것은 구국투사의 아들로서다.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서가 아닐 게다. 나 자신의 가치를 갖자 빈 껍데기 속에 알맹이를 채우자. 행동인이 되자. 도현은 벌떡 일어났다. 자기 자신이 금시 위대한 투사나 영웅이 된 것 같은 벅찬 감동을 깨달았다.⁴⁵⁾

『낙서족』의 도현은 천성적으로 미련하고 무모한 용감성의 소유자이다. 도현은 독립운동가인 아버지와 숙부 때문에 일제의 끊임없는 감시 속에 있게 되는데, 인용문 (1)에서 ‘파나마 모자’(일본경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울분과 절망감을 전봇대를 들이받는 데서 푼다. 또 한편으로 그는 인용문 (2)에서 드러나듯 숙부와 아버지를 본받아 독립운동에 헌신하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 그의 회극성은 이와 같은 천성적인 미련함과 용감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부조화에서 발생한다.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도현이 벌이는 다양한 사건들, 즉 파출소 순경을 머리로 받아 버리고, 일본에 대한 복수라며 하루꼬를 겁탈하거나 비밀 아지트라며 공중 화장실에서 기거하는 것 등은 자신의 천성적 기질을 무시하고 숭고한 가치를 추구할 때 발생하는 우스꽝스러움, 궁극적으로는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주인

44) 손창섭, 「낙서족」, 『사상계』, 1959.3, 383면.

45) 손창섭, 「낙서족」, 378면.

공의 모습의 전복을 보여준다. 도현의 행동들은 숭고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지지만 근본적으로는 그의 성적 욕구나 무모한 용감성의 발현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자신의 천부적 기질을 벗어나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의 헛됨을 표현한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폴 드 만이 주장한 바 있는 자연에 대한 인간 지배의 허구성이다. 절대적 희극적인 것에서 궁극적으로 폭로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허구적 자만심이다. 인간은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자신의 자연에 대해서 지배할 수 있다고 믿지만 자연의 가장 작은 부분조차 인간적인 것으로 바꾸는 데 무력하다.⁴⁶⁾

「낙서족」은 미련하고 무모한 천부적인 기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도현의 모습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즉 자신의 천부적 기질을 넘어서서 독립운동으로 대표되는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노력들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손창섭은 불행과 죄만을 강요하는 운명적 비참함에 대항하여 우울자를 통해, 그리고 신화적 운명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여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해 나태와 침묵이라는 악마적 저항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상에서 드러난 손창섭 소설의 희극성 역시 이에 대한 저항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운명의 영역이 인간의 살아 있음 자체를 죄진 삶으로 규정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할 때, 손창섭 소설의 희극적 인물들은 이를 거부하고 인간의 자연적 삶 즉, 「낙서족」의 도현은 천부적 기질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작가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1) 남편의 주먹이 떨어질 적마다 움칠움칠 놀라면서도 그냥 몸을 더 웅크릴뿐이다. 간혹 “아야! 아야!” 하고 유창한 비명을 지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것은 참말 비명으로 듣기에는 너무나 느리고 부드러운 발음이었다. 하기는 누이도 어찌다가 아픔을 참지 못하는 듯, “한군데만 자꾸 때리지 말아요! 여기저기 좀 골라 가면서 때리라고요”하고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언젠가는 나에게 구원을 청한 일조차 있었다. “皙秀야, 좀 말려 주렴아, 얼른 좀 말려줘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만 실없이 웃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그러한 내 웃음이 잘못이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웃어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말이다. 나는 웃을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을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밑줄-인용자)⁴⁷⁾

46) Paul de Man, 앞의 글, 213-214면.

(2) 누이는 술집작부였다. 그러한 직업에는 누이는 수재적이었다. 그 수재의 힘으로 몇 식구가 살아가고 있었다. 누이의 그 행동성은 강한 생활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략) 누이는 여적 얼굴을 매만지고 있었다. 나는 바람벽에 기대 앉아서 누이를 바라보았다. 누이에게서는 강한 인간의 냄새가 풍기었다. 나는 그 냄새를 즐기는 것이었다. 참말 세상에는 인간 냄새를 풍기지 못하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내 시선이 자기에게 부여지는 걸 의식한 누이는 얼굴을 돌리었다. 애교 있게 웃었다. 확실히 명랑하고 만족한 표정이었다. 누이는 본시 고민이나 오뇌라는 것을 전연 모르는 기질이 었다. 도대체가 속명적으로 심각해질 수 없는 인간이었다.(밑줄-인용자)⁴⁸⁾

「유실몽」에서 주인공 철수는 돈을 요구하는 매형과 이를 거부하는 누이간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누이와 매형의 싸움을 말리기보다는 그저 웃어버린다. “이런 경우에 웃어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말이다. 나는 웃을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을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그에게 웃음은 누이와 매부의 부부싸움으로 대변되는 인간들의 운명적 비참함에 대한 유일한 대응방식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웃음이 누이의 삶에 대한 긍정에서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적인 것에 의해 지배되는 누이의 삶에 대한 긍정에서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적인 것에 의해 지배되는 누이는 대표적인 동물적 인간인데, 인용문 (2)의 “누이는 본시 고민이나 오뇌라는 것을 전연 모르는 기질이었다.”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철수는 그녀를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기질, 운명적으로 심각해질 수 없는 기질의 소유자로 간주하고 그 자체로 긍정한다. 벤야민에 따를 때, 회극적인 것은 흔히 도덕적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⁴⁹⁾과는 달리 도덕적 판단과는 무관한 인간의 성격, 기질이 표현되는 영역이다. 운명의 영역이 자연적 삶을 죄진 삶으로 규정함으로써 발생한다고 할 때, 회극적 인물은 인간의 자연적 삶이 그 자체로 아무런 죄를 짓

47) Paul de Man, 앞의 글, 213-214면.

48) 손창섭, 「유실몽」, 266면.

49) 그 대표적인 예로 회극적인 것에 대한 베르그송의 견해를 들을 수 있다. 베르그송은 회극적이 것이 근본적으로 육체와 정신 모두에서 있어 생명적인 것이 기계적이고 경직된 것으로 전환될 때 발생한다고 보고 그 궁극적 효과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러한 기계적이고 경직된 것을 교정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H. Bergson(김진성 역), 『웃음 : 회극의 의미에 관한 시론』, 종로서적, 1993 참조.

지 않았다는 관점에 입각해 도덕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그 인물의 기질을 표현하는 데서 창조된다.⁵⁰⁾ 『낙서죽』의 도현의 무모한 용감성이나, 『유실몽』의 누이의 동물적 본능이 그 자체로 도덕적 판단과는 무관한 기질로서 간주되는 데서 드러나듯 손창섭 소설에서 회극성은 도덕적 올바름과 상관없이 인간존재의 기질을 드러내는 영역으로서, 죄를 강요하는 운명에 대항하여 인간존재의 무구성을 표현하고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감각적이고 직접적인 삶을 종교적 삶으로 지양하려 하고 침묵과 권태를 악마적인 것이라 하여 부정하지만, 운명의 가공할 힘을 발견하면서도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손창섭은 역으로 악마적인 것을 통해, 그리고 자연적 삶에 대한 긍정에 기초한 회극성의 창조를 통해 신화적 운명에 저항하고 있다.

IV. 결론

전후작가 손창섭의 철학은 문학적 실존주의다. 이데올로기 전쟁은 인간의 본질, '무'로서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본질은 없고 죽음과 죽음에 직면한 삶이, 정지된 세계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삶의 겉모습만 있다. 절망과 고독과 죽음의 심연은 피할 수 없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을 드러내는 손창섭의 인물들은 이 부근에서 움직인다. 이러한 우울자들은 니체가 지적한 바 있는 불운한 자의 허무주의 즉, 최고가치의 몰락에 고통받으면서도 가치 파괴적 행위를 추구하는 허무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손창섭 소설의 지배적인 정조인 슬픔이 '모든 것이 죄 없다'는 통찰에 이르는 과도적 단계의 정조를 의미한다.

손창섭 소설의 우울자들은 심미적 실존을 구현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들의 비애는 실존적 예외 상황에서 일상적인 것의 통상성이 파괴되는 심미적 경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경험적 비애와 구별되는 심미적 비애라 할 수 있다. 심미적 비애는 도덕적 삶의 무의미성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신화적 운명에 사로잡힌 자의 비애이다. 이와 더불어 손창섭 소설에서 중요한

50) W. Benjamin, "Fate and Character", *Reflections*, ed. Peter Demetz, Schocken Book, 1978, 309-311면.

가치를 갖는 미적 가치가 회극성인데, 이 회극성은 좀더 적극적인 저항의 의미를 갖는다. 손창섭 소설에서 회극성은 인간존재의 부조화, 즉 인간적 삶의 유한적 상황과 인간적 삶이 추구하는 것 사이의 모순 중 전자를 전경화할 때 발생하며, 그 근본에는 동물적 인간과 우울자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 자연적 삶에 대한 긍정이 자리잡고 있다. 「공휴일」의 도일, 「미해결의 장」의 지상, 「생활적」의 동주 등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우울자들은 선을 거부하는 우울자 특유의 나태, 폐쇄적 침묵을 통해 신화적 운명에 대해 악마적 저항을 시도한다.

신화적 운명은 자연적 삶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허무주의를 도래케 하는데, 우울자는 자연적 죄를 거부하고 자연적 삶의 무구성을 긍정함으로써 신화적 운명과 허무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심미적 비애와 더불어 손창섭 소설의 허무주의는 또 하나의 고유의 미의식을 산출하는 바, 회극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손창섭 소설에서 제시되는 회극성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복, 열등함을 바라볼 때의 웃음, 즉 보들레르가 말한 절대적 회극에 가까운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다. 이를 통해서 비판되는 것은 자연을 지배하고 있다는 인간의 자만심이다. 「유실몽」의 누이와 「낙서족」의 도현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생래적인 기질의 소유자로서 그들이 야기하는 회극성은 인간적 삶을 자연적 죄로 규정하는 신화적 운명에 대항해 인간의 자연적 무죄성이라는 비전을 보여준다.

주제어: 허무주의, 미의식, 우울자, 부정적 역사철학, 고통, 심미적 비애

참고문헌

- 구인환 외, 『한국전후소설연구』, 삼지원, 1995.
- 김영화, 「손창섭론 : 권태형 인간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월간문학』, 1978.4.
- 김지영,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주체형성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진기, 「손창섭의 무의미의 미학」, 박이정, 1999.
- 배개화, 「손창섭 소설의 욕망 구조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5.
- _____, 「손창섭 초기 소설에 나타난 아이러니 구조」, 『한국전후문학의 분석적 연구』, 월인, 1999.
- 유종호, 「모멸과 연민(上)(下)」, 『현대문학』, 1959.9,10.
- _____,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 유철상, 「한국전후소설의 관념지향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 이현석, 「전후소설의 서사구조와 수사적 성격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7.
- 정창범, 「손창섭론 : 자기모멸의 신화」, 『문학춘추』, 1965.2.
- 조남현, 「손창섭의 소설세계」, 『한국현대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1993.
- 천이두, 「50년대 문학의 재조명」, 『현대문학』, 1985.1.
- 최강민, 「한국 전후 소설의 폭력성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0.
- 최종민,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인간형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2.
- 하정일, 「전쟁세대의 자화상」, 『작가연구』 1호, 1996.
- 한상규,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아이러니의 미적 기능」, 『외국문학』, 1993. 가을.
- _____, 「손창섭 초기 소설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유형화」, 『관악어문 연구』, 1993. 12.
- 한수영, 「1950년대 문학의 재인식」, 『작가연구』 1호, 1996.
- _____, 「1950년대 한국소설 연구」 『1950년대 남북한 문학연구』, 평민사, 1991.
- Ansell-Person, K., *Nietzsche Contra Rousseau*,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96.
- Behler, E., *Irony and the Discourse of Modernity*,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0.
- _____, "Nietzsche's Challenge to Romantic Humanism", *Nietzsche Critical Assessments I*, ed. D.W. Conway, Routledge, 1998.
- Benjamin, W., *The Origin of German Tragic Drama*, trans. J Osborne, NLB, 1977.
- Burgess, A.J., "A Word-Experiment on the Comic", *International Kierkegaard Commentary : The Corsair Affair*, ed. R.L. Perkins, Mercer, 1990.
- Hall, R.L., "Language and Freedom: Kierkegaard's Analysis of the Demonic in The Concept of Anxiety", *International Kierkegaard Commentary: The Concept of Anxiety*, ed R.L. Perkins, Mercer, 1985.
- Hare, J.E., "The Unhappiness One and the Structure of Kierkegaard's Either/Or", *International Kierkegaard Commentary: Either/Or I*, ed. R.L. Perkins, Mercer, 1995.
- Hegel, W.H.F(두행숙 역), 『헤겔미학Ⅲ』, 나남출판사, 1996.
- Heidbrink, L, *Melancholie und Moderne : Zur Kritik der historischen Verzwijfung*, München, 1994.
- Jaspers, K.(신일철 역), 『비극론』, 신조문화사, 1969.
- Pensky, M., *Melancholy Dialectics: Walter Benjamin and the Ploy of Mourning*,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3.
- Rochlitz, R., *The Disenchantment of Art: The Philosophy of Walter Benjamin*, trans. J.M. Todd, New York: Guilford Press, 1996.

<Abstract>

The resistance way of hypochondria man and comedy on Chang-seop Sohn's novel

Bae, Kyeong-Yeol

This study explores the nihilistic aesthetics in the works of Chang-seop Sohn on the representative of post-Korean war novelists, focusing on the catastrophic effects of Korea war on his works, especially on his deep distrust of history and existing social values, which may be found both in the contents and forms of his novels. This writer have in common in his shared disbelief in such 'big words' as truth, god, and morality, leading his novels to what we call the devaluation of the highest values. Rather his works lean towards the new representation of the highest values. Rather his works lean towards the new representation our world as a kind of the world of demonic power and mythical violence. Sohn's characters may be categorized either as the animalistic human or as the depressed one. Both categories of characters are on the same ground in his trenchant distrust of any established moral values.

His characters are what we may call non-humans, who are obsessed with guilty conscience. His characters of non-humans lost their beliefs in such social principles of modern world as causality and reason. This characters may be termed positive nihilists who wish to watch his own destruction with willingness.

Apart from the similar elements in his thematic contents, the styles and forms of his works illustrate the shared nihilistic aesthetics.

The terrible violence in the Korean war inscribe the unerasable scars on his world view(Weltanschauung). The depressed characters in his novels

embody the element of aesthetic existence which differs itself from experiential sadness. The comic is the expression of the more positive countersign to the devastating post-war society. This characters suggest the author's desire for the natural world.

Key words: nihilism, hypochondria, comedy, non-being, aesthetic sadness,
the tragic, post-war novels